

대처 英수상의 정치적 明暗 분석

傳記 「우리 중의 하나」 출간



영국의 대처수상이 올해로 집권 10년을 맞이, 금세기 최장수 재임기록을 세웠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영국 경제와 사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데 성공했으나, 그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견해도 적지않아 과연 4期 연임을 달성할 수 있을는지 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영국의 대처수상(63)이 지난 5월4일로 집권 10년을 맞이한 것과 때를 같이해서, 그의 정치적 업적과 개인적인 면모를 두루 살핀 전기 「우리 중의 하나」(One of Us)가 최근 영국에서 출간돼 시선을 모으고 있다. 저자는 일간지 「가디언」의 정치 칼럼니스트 휴고 영.

1979년 1월 총선에서의 승리로 대처가 대권을 잡았을 당시, 영국경제는 높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증세를 앓고 있었다. 영국 국민들은 새로운 수상에 한가닥 희망을 걸면서도, 영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수상으로 등장한 그의 능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떨쳐버리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대처는 집권과 동시에 노동당정권 하에서 복잡하게 발전돼 온 각종 사회보장 장치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대처리즘으로 요약되는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복귀를 강력하게 추진해나갔다. 도탄에 빠진 영국 경제와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데 성공했다는 찬사와 함께 가진 자만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격렬한 비판도 한몸에 받고 있는 그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밀어부치기 위해선 어떠한 타협도 불허하는 정치스타일 때문에 '철의 여인'이라는 애칭이

애칭으로도 불리고 있다.

휴고 영은 「우리 중의 하나」에서 대처야말로 역세계 운이 좋은 정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집산주의가 후퇴하고 있을 때 정권을 잡음으로써 그는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이념을 성공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런가하면 70년대 중반 이후 의회 내에서 귀족출신 의원들의 세력이 점차 약화되고 직업정치가들의 비중이 더욱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점도 식료품상 집안출신인 대처에게는 더없이 좋은 정치적 환경이었다고. 그러나 그가 자신의 위치를 보다 확고하게 다지는 계기가 됐던 사건은, 역시 82년 4월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섬 장점으로 일어난 포클랜드 분쟁이었다. 대처는 이 사건을 통해 국민들의 애국심을 대대적으로 부추기는 한편,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을 일소하는 결정적인 기회로 심분 이용했다.

저자 휴고 영은 대처가 국민들과의 일체감을 강조하기 위해 늘상 사용하는 표현인 '우리 중의 하나'를 제목으로 내세우면서도 정작 본문에서는 "대처는 이제까지 결코 우리들 중의 하나인 적이 없었다. 그는 전적으로 우리들보다 우월한 존재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사실

대처는 세번에 걸친 수상직 연임과 집권 10년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고도 국민 대다수의 적극적인 지지와 사랑은 받지 못하고 있는데, 확고한 보수주의 정치이념과 개인적인 성향으로 인해 중산층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진정 대중과 함께 하려는 열의가 부족하다고 저자는 대처의 정치적 약점을 지적했다. 여성정치인이라는 점과 정책노선의 이견 때문에 대처는 아직까지도 당내에서 아웃사이더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 영의 분석이기도 한데, 따라서 그는 대처의 성공적인 정치생활을 '아웃 사이더의 승리'라고 정의했다. 그런가하면 저자는 항상 자신의 견해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는 대처의 융통성 없는 태도를 은근히 비꼬면서, 만일 대처가 다른 시대, 다른 장소에서 태어났더라면 영광없이 폭군이 되었을 것이라고 일침을 놓기도.

체르노빌 사진집 日蘇 공동출판

原電역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꼽히는 체르노빌 원전사고(86년 4월2

6일)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가운데, 사고 직후의 참상을 기록한 사진집 「체르노빌 르포르타지」가 소련에 이어 최근 일본에서도 간행됐다.

모스크바 소재 사진도서 전문출판사 프라네타社가 이 사진집을 처음 간행한 것은 지난해 5월. 여기에는 노보스티 통신의 이고르 F. 코스친과 타스통신의 발레리 A. 즈파로프 두 사진기자가 방사능 노출의 위험을 무릅쓰고 촬영한 9백여장의 사진이 수록돼 있는데, 폭염을 내뿜고 있는 원전 4호기의 모습, 살고 있던 집을 버리고 빈손으로 이주하는 마을 주민들, 집안까지 쌓인 '죽음의 재'를 물로 씻어내는 작업원들의 모습 등을 과장없이 보여주고 있다. 초판 5만5천부가 출간 즉시 판매되는 좋은 반응을 얻어, 체르노빌사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아직도 비상함을 증명하기도 했다.

이 책의 번역출판이 일본 출판가 안팎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은 것은, 원전사고의 심각성 때문이기도 했지만 일·소 공동출판방식으로 출간됐다는 점 때문이기도 했다. 즉 번역출판권을 사들인 일본의 IBC출판사가 러시아어 원문을 일어로 번역한 후 제판필름을 소련에 보내면, 프라네타社가 이를 받아 인쇄하여 완성된 책을 일본으로 보내는 출판 방식을 취했던 것이다. 소련측에서는 저작권과 아울러 인쇄물을 수출한다는 잇점이 있었고, 일본측에서도 제작비를 오히려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페레스트로이카 이전만 하더라도 이러한 형태의 공동출판은 생각하기 힘들었다.

IBC출판사는 89년 1월을 발매예정일로 잡고, 88년 8월 제판필름을 모스크바로 긴급 우송했다. 그러나 순조롭던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것은 그 다음부터. 12월말 소련으로부터 인쇄가 끝났다는 연락을 받고 책이 도착하지만 눈이 빠지게 기다리던 책은 겨우 1권뿐. 시베리아 철도와 배를 통해 수송되는 과정에서 나머지 5천여권의 책들은 분실됐다는 것이 소련측의 설명이었다. 책꾸러미의 행방을 찾느라고 벌인 대소동이 원만하게 해결된 것이 3월말. 애당초 출간 예정일보다 다섯달이 늦은 5월, 「체르노빌 르포르타지」가 우여

곡절 끝에 일본 서점가에 선을 보이게 됐다.

IBC사의 中川전무는 그동안 겪은 마음 고생이 뼈에 사무쳤던지, "러시아인들과 함께 공동출판을 할 계획이라면 우선 남다른 인내심을 갖추라"고 출판계 동료들을 위해 조언을 잊지 않았다.

美 페이퍼백 탄생 50주년 맞아

"푼돈으로 수준높은 작품을 읽자"는 구호를 내걸어 출판계에 새바람을 일으켰던 '페이퍼백' 도서가 미국 출판계에 등장한지도 6월이면 꼭 50주년이 된다.

권위있는 서평전문지 「뉴욕 타임스 북리뷰」는 최근호를 페이퍼백 등장 50주년 축하특집호로 꾸며, 오늘날 미국 출판계에서 페이퍼백 도서가 차지하고 있는 막강한 영향력과 위치를 인정했다.

고가의 하드커버가 주류를 이루고 있던 출판계에 페이퍼백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도서가 맨처음 출현한 것은 1935년 영국에서였다. 앨런 래인이라는 출판업자가 설립한 페이퍼백 출판사 '펄크 북'이 바로 그것이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대단한 엄가였던 6페니로 수준높은 작품을 읽을 수 있다는 점이 독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이 됐다.

미국에서도 1920년대 말부터 페이퍼백 출판이 시도되기는 했으나, 선구적인 출판사라고 할 수 있는 '보너 북스'사와 '모던 에이지 북스'사가 각각 1929년과 1937년에 나타났다가는 단명에 그치고 말았다. 랜덤하우스의 전설적인 편집자 색스 커밍스까지도 "페이퍼백은 미국에서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언했으나, 과감하게 재도전에 나선 출판사가 바로 '포켓 북스'와 '아메리칸 펄크'이었다.

'포켓 북스'는 수년에 걸친 은밀한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39년 6월,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 제임스 힐튼의 「잃어버린 지평선」, 애거서 크리스티의 「애크로이드 살인사건」 등을 포함한 10종의 책을 서점가에 내놓았다. 포켓 북의

첫해 판매부수는 6백만여권. 출판계의 통념을 깬 순조로운 출발이 아닐 수 없었다.

'포켓 북스'가 독자적인 편집체제를 갖추고 있었던 데 비해, '아메리칸 팽귄'은 영국에 위치한 '팽귄 북'으로부터 책을 직수입해서 판매하는 회사였다. 아메리칸 팽귄은 다양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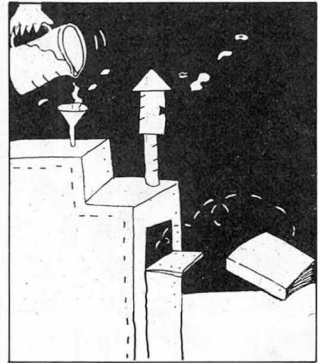
1939년 : 페이퍼백 탄생

목록을 자랑한다는 점에서 포켓 북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었는데, 설립자였던 밸런타인 부부는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해상로의 이용이 용이치 않게 되자 1943년 합작회사인 '밴담 북스'를 세우고 페이퍼백의 새로운 분야인 역사소설과 웨스턴소설을 개발해냈다. (두 사람은 52년 밸런타인 출판사를 설립, 현재까지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초창기 페이퍼백의 권당 가격은

25센트. 당시 하드커버의 가격은 2~3달러 정도였다.

"마치 동전처럼 누구의 손에나 들려 있게 만들겠다"는 것이 페이퍼백 출판사들의 야심이었는데, 50년이 지난 오늘날 길거리에서나 지하철 속에서나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페이퍼백을 펼쳐든 사람들의 모습에



1945년 : 인스턴트 북 등장

서 페이퍼백 혁명의 완성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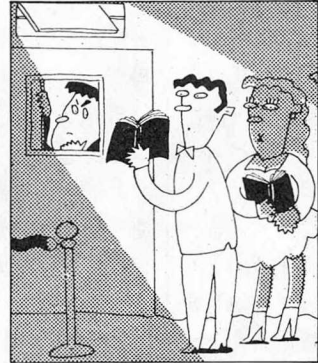
다음에, 지난 50년 동안 미국 페이퍼백이 걸어온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

▲1939년 : '포켓 북스'와 '아메리칸 팽귄' 설립

▲1943년 : 전선에 나가 있는 일선군인들을 위해 '밴담 북스'는 「진중문고」(Armed Service Edition)를 개발해냈다. 전쟁터에서 이 문고를 읽었던 젊은이들이 종전 후 사회로

돌아와 확고부동한 페이퍼백 독자층으로 자리잡게 된다.

▲1945년 :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망한지 9일만에 '포켓 북스'사는 그의 생애와 업적을 총정리한 249페이지 짜리 페이퍼백을 내놓았다. 이 책은 초판 34만부가 즉시 팔리는 초유의 판매기록을 세우는 한편, '인스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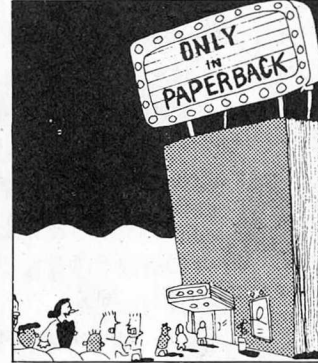
1974년 : 최초의 페이퍼백 북클럽 결성

북'이라는 새로운 출판용어를 등장시키는 계기가 됐다. 인스턴트 페이퍼백으로는 「케네디 암살사건에 관한 워렌조사위원회 보고서」(64년) 「엔테베 90분」(76년) 「아야톨라 호메이니론」(80년) 등이 그 뒤를 이었다.

▲1946년 : 「스포크바사의 육아법」이 출간되어 육아법에 혁명을 일으켰다.

▲1947년 : 청소년잡지 발행사인 스킨라스틱사가 십대들을 위한

'북 클럽'을 최초로 설립. 25센트만 내면 매달 페이퍼백 신간을 받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스킨라스틱사는 훗날 유치원생부터 고등학교 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계층의 북 클럽을 만들어, 수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책읽는 기쁨을 알게 해주었다.



1989년 : 솔 벨로의 신작, 페이퍼백으로 출간

▲1966년 : J.R.R. 톨킨의 3부작 공상과학소설 「반지의 대왕」(Lord of Rings)이 첫 출간된지 12년만에 페이퍼백으로 재출간돼 경이적인 판매고를 기록했다. 맨처음 출간됐을 당시 이 작품은 독자의 호응을 거의 얻지 못했었는데, 밸런타인 출판사가 65년말 크리스마스 선물용으로 포장 판매를 시작하여 대단한 인기를 모았다. 톨킨은 소동은 공상과학소설이라는 비교적 새로운 분야의 독자층을 형성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페이퍼백의 상업성을 뚜렷하게 증명하는 계기가 됐다.

▲1974년 : 미국내 최초로 페이퍼백 북클럽이 설립됐다. 일반적으로 북클럽들은 하드커버를 선호해왔으나, 페이퍼백 북클럽이 결성됨으로써 페이퍼백의 수준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결과가 초래됐다.

▲1980년 : 코네티컷의 심리학자 M.S. 펙의 저서 「길없는 여행」(The Road Less Traveled)이 터치스톤 출판사에서 하드커버로 출간됐다. 이 책은 이어 사이몬 앤드 슈스터 출판사를 통해 페이퍼백으로 출간됐으며, 83년 10월부터 89년 5월 현재까지 장장 290주나 페이퍼백 부문 베스트셀러에 머무르는 대기록을 세웠다. 하드커버로 출간됐을 당시에는 1만8천부밖에 팔리지 않았으나, 현재까지 판매된 페이퍼백 수효는 약 320만부.

▲1989년 :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솔 벨로가 자신의 신작소설인 「도둑질」(A Theft)을 페이퍼백으로 출간했다.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작가의 작품이 페이퍼백 오리지널로 출간되기는 미국 출판역사상 처음 있는 일.

—오애리 기자

「뉴욕타임스 북 리뷰」 베스트셀러목록 1989년 5월 14일 현재

순위	소설	비소설	페이퍼백 소설	페이퍼백 비소설
1	THE SATANIC VERSES 쉘런 러쉬디(바이킹) 런던에 거주하는 보메이 출신의 두 남자가 그들 자신 속에 내재한 선과 악을 발견하게 된다.	ALL I REALLY NEED TO KNOW I LEARNED IN KINDERGARTEN 로버트 펠검(빌라드) 수필집	TO BE THE BEST 바바라 테일러 브래드포드(밴담) 재정적 스트레스를 헤쳐나가는 백화점재벌 상속녀의 이야기	BITTER BLOOD 제리 블랫스(오닉스) 부유한 세가문에서 발생한 9명의 살해사건의 원인을 파헤친 작품
2	THE NEGOTIATOR 프레데릭 포사이드(밴담) 핵무기 폐기조약 체결을 방해하려는 테러리스트들의 시도를 한 미국인이 막는다.	LOVE AND MARRIAGE 빌 코스비(더블데이) 로맨틱한 관계의 기쁨과 좌절에 대한 고찰	LIGHTNING دن R. 쿤즈(버클리) 신비에 싸인 한 낮은 사람이 곤경에 빠진 여성을 구해낸다.	THE POWER OF MYTH 조세프 캠벨, 빌 모이어스(더블데이) 인간과 삶과 신화의 관계
3	THE JOY LUCK CLUB 에이미 탄(퍼트남) 이민 1세대인 어머니와 2세대인 미국화대 딸 사이의 긴장과 문화적 유대	A BRIEF HISTORY OF TIME 스티븐 W. 호킹(밴담) 영국의 물리학자 호킹의 우주론	THE TAMING 주드 더버로(포켓) 중세 영국을 배경으로 한 로맨스와 기사들의 모험	THE ROADLESS TRAVELED M.S. 펙(터치스톤/S & S) 정신분석 의사의 심리학 및 영감에 관한 글
4	STAR 다니엘 스틸(벨라코르트) 워싱턴 정가와 할리우드 연예계에서 각각 성공한 남녀의 운명적 사랑	"FUNNY, YOU DON'T LOOK LIKE A GRAND-MOTHER," 로이스 와이즈(크라온) 광고업에 종사하는 저자가 8살난 손자를 둔 할머니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되돌아 본다.	THE SHELL SEEKERS 로자몬드 필처(델) 영국의 한 가문의 삼대에 걸쳐 전해져 내려오는 그림	LOVE, MEDICINE & MIRACLES 버니 시겔(페레니얼/하퍼 & 로) 환자의 정신과 감정의 중요성
5	A PRAYER FOR OWEN MEANY 존 어빙(모로) 사고로 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소년이 우리 시대 최고의 예언자로 둔갑한다.	CITIZENS 사이론 샴어(크넵프) 프랑스 혁명사	THE DRAWING OF THE THREE 스티븐 킹(플럼 NAL) 「진슬링어」 시리즈 최신판	CHAOS 제임스 글레이크(팽귄) 혼돈 속에서 질서와 패턴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뉴 사이언스'
6	KILLSHOT 엘모어 레너드(아버 하우스/모로) 두 약한이 그들의 범죄사실을 알고 있는 남자를 암살하고자 한다.	OUT OF BLUE 오렐 허쉬어, 제리 B. 젠킨스(월치 머드 & 하이아트) LA 다저스팀 투수 허쉬어 자서전	2061 : Odyssey Three 아더 C. 클라크(델 레이/밸런타인) '2001년' '2010년' 후속편	THE PRIZE PULITZER 록산느 풀리처, 캐슬린 맥사(밸런타인) 신문왕 풀리처의 전 부인이 밝히는 판비치 사교계의 이면
7	WE ARE STILL MARRIED 개리슨 카일러(바이킹) 레이건 시대의 미네소타 주민생활을 주제로 한 유머러스한 시, 단편, 평론 모음	THE NIGHT THE BEAR ATE GOOMBAW 패트리 F. 맥마너스(홀트) 26편의 반 자서전적 이야기들	TAPESTRY 벌바 플레인(델) 양차 세계 대전을 배경으로 한 뉴욕 은행가문의 이야기	BATTLE CRY OF FREEDOM 제임스 M. 맥퍼슨(밸런타인) 남북전쟁사
8	WHILE MY PRETTY ONE SLEEPS 메리 허긴스 클라크(사이몬 & 슈스터) 가십작가의 살인사건이 뉴욕 하이패션계에 파란을 몰고 온다.	BLIND FAITH 조 맥키니스(퍼트남) 1984년 뉴저지주 톱스 리버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파헤친 한 가정의 비극	LOVE IN THE OF CHOLERA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즈(팽귄) 콜롬비아의 한 시인의 순애보	RIDING THE IRON ROOSTER 폴 더루(아이비) 중국대륙 횡단기차여행기록
9	THE TEMPLE OF MY FAMILAR 앨리스 위커(하코트 브레이크스 조바노비치) 5천여년에 걸친 인류의 다양한 관계들을 파헤친 장편소설	A WOMAN NAMED JACKIE C. 데이비드 헤이먼(라일 스튜디오) 재클린 케네디 오나시스 전기	CRIMSON JOY 로버트 B. 파커(델) 보스턴에서 벌어지는 여성 연쇄살인 사건을 파헤치는 사립탐정 스켄서	TRUMP 도널드 J. 트럼프/토니 슈바르츠(워너) 미국계계의 거물 트럼프의 사업스타일
10	THE DIAMOND THRONE 데이비드 에딩스(델 레이/밸런타인) 엘레니아 왕국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마술과 모험	LEGENDS, LIES, AND CHERISHED MYTHS OF AMERICAN HISTORY 리처드 샌크먼(모로) 미국이면서	THE ICARUS AGENDA 로버트 버들럼(밴담) 테러리스트들과 비밀 결탁한 하원의원의 영웅	THRIVING ON CHAOS 톰 피터스(페레니얼/하퍼 & 로) 기업생존론